

의사소통 중심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항목 제시를 위한 기초연구

김은호
고려대학교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culture-integrated education and to propose the ideal way of presenting cultural items in Korean language teaching. Education integrating the Korean cultural aspects into language teaching of Korean provides learners with an opportunity to study practical usage of the language, to help them to be motivated, and enables them to learn cultural aspects of a target language. Targeting intermediate learners, this paper analyzes the way of presenting cultural items in 4 Korean language text books. This study will also advance principles and a detailed classification of culture in Korean language teaching.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특히 한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교육 목표로 삼으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영역 외에 제 5 영역으로 문화교육의 위치를 설정하자는 제의가 있을 정도이다. 목표 언어에 대한 문화적 지식이 동반되었을 때 학습 동기나 의욕이 높아짐은 물론 목표 문화 사람들의 사고방식, 태도 등을 이해하고 학습자의 실생활에 전이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교육 기관의 교재가 문화 항목을 반영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 및 강좌 개설, 문화교육에 대한 활발한 논의(박영순 1986, 민현식 1996, 김정숙 1997, 한상미 1999, 조향록 1998, 2000)¹ 등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또 세계화 추진 방안으로 언어 정책을 검토한 연구(성광수 1996)는 한국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문화교육이 언어교육기관에서는 물론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지원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교육 상황에서 이상과 목적 의식은 아직 표류하고 있는 느낌이다. 즉 ‘문화’라는 중요한 사항을 두고 그 존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은 냉정하다기보다는 막연하고 맹목적이다. 그런가 하면 모순되게도 문화라는 것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먼저 맹목적이라고 지적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어느 수준에서 문화가 강조되고 있는지-단순히 흥미를 유발하고자 학습 유인으로만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문화충격

¹ 박영순(1986)의 언어교육으로서 문화교육의 의의, 순서, 문화적 기초어휘 제시, 문화교육의 기능과 역할 제시가 문화교육의 가치를 강조한 연구 논문의 발원이라면 조향록(1998)의 문화교육적 측면에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다섯 가지 과제(학습자의 요구 분석, 교육 현장에 문화교육과정 설치, 문화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과 보조 자료의 개발, 인접 학문과 연계 하에 고안된 교재 개발, 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 지침서 개발) 제시와 함께 고급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의 방법론(토론회, 설문조사, 연구 조사 활동, 시사 좌담회 등의 학습활동과 문화 어구, 문학 작품, 신문, 영화 및 드라마 학습) 구상은 문화교육의 최종 목표를 제시한 중간 기착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내지는 문화적 이질감 극복을 위한 목적만 가지는지, 한국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 유발이 목적이라면 어떤 문화 항목을 강조해야 할까? 지적 호기심 충족이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충족시킬 것이며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등에 대해서 답은 없는 상태이다.

한편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를 과소평가 한다고 지적한 이유는 모국어를 통한 문화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문화적 자존심을 확립하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효과적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하다’ (민현식 1996)라든가 ‘언어교육과 관련하여 문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성기철 2001), ‘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 (장경은 2001) 등 문화를 수단적 가치로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가 흥미 유발의 정도만 필요하다면 그 존재가 너무 왜소하고 그렇다면 논의될 필요조차 없다고 본다. 또 문화적 충격 극복이나 지적 호기심 충족은 언어 외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단계를 무시한 교육, 언어 교육과 문화교육의 불일치, 각 기관마다 교재에 반영된 문화항목의 불일치, 문화재 관광이나 일회성 특강이 문화교육이라는 오해 등 아직은 정리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내 기관의 문화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의사소통 중심 교수요목에 있어서 문화항목 제시 및 교육방법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비롯해 교육과정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의 문제, 그리고 교재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선행연구에 기반 하여 과연 문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어교육, 특히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문화의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고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제로 한국어 교육에서 제시되어야 할 문화를 분류해 보겠다.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문화 교육 목표와 교재에서의 문화 교육에 대해 고찰해 본 후, 문화교육의 순서 및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문화의 정의 및 분류

2.1. 문화의 정의

문화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획득하는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의 총체" 또는 "한 집단을 이루는 사람들의 독특한 생활방식과 생활을 위한 모든 설계"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문화는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모든 것이며, 비물질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를 포함한다.²

여기서 비물질적 문화요소는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언어, 사회제도, 신념체계, 미학을 포함한다. 우선 언어는 언어문화권이라는 용어가 암시하듯이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다른 문화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관용적인 뉘앙스나 상이한 의미를 갖고 있다. 사회제도의 측면에서 사회계층, 연령집단, 남성과 여성 등의 지위는 모두 문화에 따라 다르며 구성원들의 가치와 행동, 생활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구성원들의 인생관, 생활습관, 구매할 제품과 구매하는 방법, 관람할 영화, 읽을 신문이나 잡지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물질적 문화요소는 기술측면과 경제측면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기술측면이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보유한 노하우로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모든 공정과 기법을 포함한다. 하나의 문화 속에서 널리 이용되는 제품이 다른 문화

² E.B. Tyler(1987), *Primitive Culture*

속에서는 완전히 생소할 수 있으므로 물질적 문화요소의 기술 측면은 마케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물질적 문화요소는 도구, 자동차, 도로, 농장 등과 같이 사람들이 창조하고 사용하는 모든 물리적 실체로 구성되는데, 마케팅과 소비자 행동의 맥락에서 물질적 문화요소는 그 사회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 농수산물 시장이나 쇼핑센터와 같은 유통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에 반하여 비물질적 문화요소는 슈퍼마켓 내에서 소비자가 쇼핑하는 양상, 새롭고 보다 나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열망, "바겐세일"이라는 단어나 구체적인 포장형태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포함한다.

문화의 중요한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는 조직화되고 통합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문화는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에 의해 창출된다. 셋째, 문화는 학습된다. 넷째, 문화는 구성원들이 중요시하고 바람직하다고 동의하는 가치를 가짐으로써 독특한 규범을 제공한다. 다섯째, 문화는 사회적으로 공유된다. 여섯째, 문화는 지속적이면서도 동적이다.

문화는 보통 인류가 만들어낸 정신적, 물질적 산물의 총체를 의미한다. Kroeber & Kluckhohn(1963)에서 열거한 대로 지식(knowledge), 신념(belief), 예술(art), 법(law), 관습(custom), 습관(habits), 능력(capabilities), 도덕(moral), 언어(language), 결혼(marriage), 제도(system), 산업(industry), 사유방식(system of thought), 삶의 태도(manner of living), 심미적 기준(aesthetic norm), 기술(craft), 인간의 작품과 활동(people's products and activities), 물질적 재원(material objects) 등 문화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또 Larson & Smalley(1972: 39)³이 지적한 대로 생각, 관습, 기술, 예술 등의 통합체로 단순한 총체적 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또 장기적 시간 속에서 내재화된 것들이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한 민족이나 국가에 내재된 것을 한정된 시간에 교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문화교육이란 결국 어떤 한 문화의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는 학습자를 목적 언어의 문화내용으로 다시 프로그램화하는 과정이다. 어떻게 하면 이미 하드웨어화 된 자국의 문화 속에 목표 언어와 문화를 효과적으로 프로그램화 할 수 있을까?

2.2. 문화의 분류

인간이 획득한 능력을 포함하는 복합체 전체를 언어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의 특성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에 한정	성격	유전되고 학습됨
집단이나 범주에 한정	문화	학습됨
보편적	인간성	유전됨

[그림 1] 문화의 특성⁴

앞에서 보듯이 문화는 그 범위가 넓지만 ‘집단이나 범주에 한정된’ 것이고 사회생활을 통해 학습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간의 교육으로 문화 자체를 학습자에게 내재화시킬 수도 없으며, 일회성의 교육이나 순간적인 경험으로 언어 학습에 효과를

³ 이흥수(2001) 재인용.

⁴ 차재호. 나은영 역(1995: 27).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문법 항목의 난이도에 학습 순서가 있듯이 문화항목도 어떤 기준에 의해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외국생활에서의 적응 과정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학습자의 관심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고유성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기준이 필요하다.

또 문화항목과 문법항목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시킬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문법항목과 문화항목을 별개로 교육시키는 방법과 교재 본문을 문화적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법, 교재 본문을 포함하는 내용을 지식 위주로 구성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에게 가장 독특하며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를 구성하는 것이 한 방법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항목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문화는 다양한 복합체이므로 이를 유형별로 무리를 지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문화교육의 중요성에서 문화체육부(1996)에서는 한복, 한글, 김치와 불고기, 석굴암과 불국사, 태권도, 고려인삼, 탈춤, 종묘제례악, 설악산, 세계적 예술인 등 문화유산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성취문화로 언어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긴 하지만 궁극적 대상은 아니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문화의 유형에 분류 작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R. Scollon & S. W. Scollon(1995)에서는 고급문화(high culture)와 인류학적 문화(anthropological culture)로 구분하고 국제 문화간 의사소통 요인을 언어 인류학적 요인들과 관련 지으면서 광범위한 요인을 열거한다. 그런데 이런 구분은 문화적 상대주의 입장에서 볼 때 문화교육에서 도움을 받을 구분은 아니라고 본다.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낮다’ 또는 ‘높다’ 라고 판정할 절대적 기준이 없고, 한 문화 안에서 이런 구분이 존재한다면 신분이나 경제적 차이 등의 구분이 전제된 것이고 이런 전제에 의해 나누어진 것이라면 고급문화라는 개념은 다수의 문화가 아니라 소수의 문화이기 때문에 한 민족의 문화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Vallette(1995)에서는 태도, 관습, 일상생활, 사고방식, 가치판단 기준을 포함하는 인류학적, 사회학적 문화와 지리, 역사, 사회과학, 예술을 포함하는 문명발달사적 문화로 나눈다. 비슷한 분류로 Alan Maley(1993)에서는 총체적 문물(역사, 지리, 제도, 문학, 미술, 음악, 생활방식)과 일반행위문화로 나눈다.

이들의 구분에서 보면 문화는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단순한 명칭이긴 하지만 이방인으로 외국 생활을 하는 경우 눈에 보이는 것은 비교적 먼저 파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늦게 파악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구분은 교육에서 순서를 정하는 데 유의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 하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분은 Hofstede(1995)이다. Hofstede(1995)에서는 사회유형을 권력과의 거리,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남성적 문화와 여성적 문화, 불확실성의 회피 정도, 유교적 역동성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이는 문화의 내재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 한국 생활이 오래되고 언어 수준이 고급으로 갈수록 다른 문화와 변별되는 사회 문화의 내적 특성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어떤 구체적 행위나 사물 내면에 있는 의미를 알 때 진정으로 그 문화를 알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항록(2001)에서 시도한 분류는 (비교적) 순수 전통 문화, (비교적) 전통에 기반한 일상 문화, (비교적) 순수 외래 문화로의 분류이다. 이는 문화의 기반에 따른 분류로 순수 외래 문화의 경우는 무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특별히 교육과정에서 우리 문화라는 이름 아래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박영순(1989)에서는 한국어 속의 문화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경어법과 겸양법
2. 관용어와 속담
3. 일반어휘

- <1> 한국을 상징하거나 대표하는 어휘들
- <2> ~<4> 의식주 생활
- <5> 문화재 <6> 문학 <7> 음악 <8> 미술, 공예
- <9> 무용 <10> 체육, 놀이
- <11> 기업체, 상표 <12> 꽃 <13> 인물
- <14> 전통, 예절 <15> 관광지
- <16> 기타 : 스승, 벗, 우애, 품앗이, 두레

이러한 분류는 언어 교육적 측면에서 보다 구체화 된 것들이며, 교육순서를 정하는 많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의 경어법과 겸양법은 개별 언어 한국어의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가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되는 문법 항목이다. 따라서 그 체계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학습 초기에 지도될 수 있는 것들이다. 교육에선 언어형태 학습을 목표로 삼는 동시에 지문은 어른과의 대화나 부모공경이나 상대방의 존중이라는 한국의 가치 문화를 강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가치 문화라고는 하지만 그 심층적 의미의 추구는 다시 고급 단계에서 내면화시켜야 할 것이다. 2의 관용어와 속담은 우리의 가치 문화를 강조하거나 교육하기에 좋은 자료이다.⁵ 또 어휘의 기본 의미에 대한 학습은 물론 상징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 교육되어야 할 것들이다. 따라서 고급 단계에서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3의 <2> ~ <4>의 의식주 생활은 학습자에게 늘 동반되는 것으로 경험의 빈도가 높은 것이며 일종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행위의 주체는 그 속에 내재된 가치를 외국어 학습자에게 침투시킬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외국 생활의 적응 과정에서 학습자는 어떤 것에 주목하게 되는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눈다. 그런가 하면 이는 한국인에게 깊이 내장되어 있어 변화 가능성이 적은 순서이기도 하다.

2.2.1. 상징 문화

어떤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말, 그림, 또는 대상을 가리킨다. 이는 한국에서 살지 않더라도 이미 외국인들에게 ‘인식된 한국’이다. 한 나라 언어를 구성하는 낱말들이나 은어가 대표적이고 그밖에 코카콜라나 국기처럼 불변하는 것들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상징문화로는 태극기, 무궁화, 김치, 불고기 등이 있으며, 역사상의 인물이나 우리 고유의 문학 양식을 비롯한 무형 문화재들이 이에 속한다.

2.2.2. 사회제도를 포함한 일상 문화

일상문화란 한국인을 특징짓는 구체적인 일상적 체험과 그 생활양식에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 문화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간주되는 집합적 활동이다. 이들 중에는 보통 다른 나라와 변별되는 어떤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의사소통법, 명명법, 음식문화, 의복문화, 만남의 형태 등이 이에 속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어 교육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화를 동반한 언어를 가르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일상문화이다. 이는 현재 행해지는

⁵ 속담에서 크게 눈에 띄는 문장 유형은 1. 이치나 당위성을 나타내는 서술문의 유형이다. 2. 의문문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다시 길지 않는다고 이 우물에 똥을 놓까?’ 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반문하는 형식으로 나타낸다. 3. 바람직한, 당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면 ~한다’나 ‘~해야 ~한다’의 형식이 많다. 따라서 속담을 토대로 문화내용 목표설정에서 우리가 선호하는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것으로 직접 생활하면서 수행되지 않으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교육에서 반영될 때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먼저 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2.2.3. 가치문화

가치는 앞의 두 문화와 비해 다소 복잡하다. 가치란 어떤 한 상태보다 다른 상태를 선호하는 포괄적인 경향성을 말한다. 한 민족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한 민족의 의지에 의해 형성되며, 다시 인간의 문화에 영향을 주는 순환을 하게 된다.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 사회 속에서 형성되고 그 체제 속에 녹아들어 인간의 행동을 집단적으로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는 문화의 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질 기반만이 아니라 정신적 기반에 대한 고려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어떤 형태의 생각, 느낌, 행동들이다. 문화교육은 학습자가 장시간에 걸쳐 누적시킨 소프트웨어를 한국적 소프트웨어로 재형성시키는 일이다.

국가나 민족은 양극단의 상반된 가치 중 선호하는 특징적인 경향이 있을 것이다. 또 이방인에 의해 자국민의 해석이나 자부심과 달리 해석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어떤 배경에서 그러한 관념이 생겼는지 객관적 기준에 의한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며, 긍정적 가치를 부정적 가치보다 먼저 교육하는 것이 좋다.⁶ 목표 언어 사회에 대한 호감이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1> 집단적 주체 의식 ↔ 단결정신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아버지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두레
- <2> 수리개념 미약 ↔ 넉넉함 또는 여유
단수, 복수 구분의 미발달, 너댓, 대여섯 ↔ 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 <3> 서열의식 ↔ 모범의식 또는 존중의식
대우법의 존재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부모가 착해야 효자가 난다, 어린 아이 말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 <4> 극단의의식 ↔ 완전지향의식 또는 적극성
이판사판 ↔ 極盛이면 必敗, 지성이면 감천이다, 처음이 나쁘면 끝도 나쁘다, 첫술에 배 부르랴, 내일은 삼수갑산 가더라도, 내친 걸음
- <5> 숙명의의식 ↔ 낙천주의
사주팔자, 팔자소관 ↔ 생각이 팔자, 잘 살아도 내 팔자 못 살아도 내 팔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달도 차면 기운다, 빈부궁달이 수레바퀴다
- <6> 명분의의식 ↔ 자존심
체면, 낮부끄럽다, 얼굴에 먹칠한다 ↔ 족제비도 낮짝이 있다

위에서 제시 한 것은 언어심리학적 입장⁷에서 국민성과 언어의 관계를 제시한 민현식(1996)의 것이다. 자칫 부정적 고정관념에 빠질 수 있다. 실제 한국 문화와 인식된

⁶ 문화 관련 서적에서 한국인의 사고 방식을 기술하는 것들을 보면 주로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킨 것이 많다. ① 슬픔 또는 한 ② 당파성 ③ 비상식성 ④ 적응주의 ⑤ 비자율적 ⑥ 불신 ⑦ 감정적 ⑧ 직관적 ⑨ 공동체지향적 ⑩ 은밀하며 혼탁함 ⑪ 감투지향성 ⑫ 현상유지적 ⑬ 조급성 ⑭ 비성실성 ⑮ 친소의식 ⑯ 비전문적 ⑰ 비사유적 ⑱ 무속적 ⑲ 순응적 ⑳ 여유없음을 강조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모든 것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언어와 문화를 담당하는 한국어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긍정적 가치를 찾고 부각시키는 일일 것이다.

⁷ 민현식(1996)에서는 국어 문화론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① 국어 위상론 ② 국어 계통론 ③ 언어관 ④ 국어 심리론 ⑤ 문학 언어론 ⑥ 방언 문화론 ⑦ 어휘 문화론 ⑧ 이름 문화론 ⑨ 화법 문화론 ⑩ 문자 문화론 ⑪ 문체 문화론 ⑫ 국제 한국어 변이론

한국 문화(한국문화라고 생각되는 것)는 다를 수 있다. 실재하는 한국문화는 하나인데 인지하는 학습자의 머리 속에는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하게 인지될 것이다. 따라서 언어와 관련된 문화요소를 찾되 언어 교육자는 긍정적 가치관 내지 이미지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앞 부분에서 제시한 것은 주로 민현식(1996)에서 제시된 것⁸이고 ↔ 뒷부분은 문화 전달이나 교육의 측면에서 부각되어야 할 가치를 속담을 토대로 선정하여 본 것이다. 속담에는 장기간에 누적된 것으로 교훈담, 풍자담, 길흉담 등에서 (민현식 1996) 한국민이 추구해 온 바람직한 가치를 알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 문화교육에서 부각시킬 만한 가치를 첨가하면 다음과 같다.

- <1> 은밀하고 복잡한 의사소통 방식 ↔ 완곡법
언중유골 ↔ ~해 보인다, 반문법
- <2> 연줄의식 ↔ 이웃사촌
끈 떨어진 뒤웅박,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 과부 마음 과부가 안다
- <3> 지혜와 남을 헤아리는 마음
귀신도 빌면 듣는다, 남의 일 보아 주려거든 삼년 내 보아주어라
- <4> 비하의식 ↔ 겸손의식
주어생략형 ↔ 덕택이다
- <5> 덕과 평등의 중요성
- <6> 행복은 위험하다? 허무하다? ↔ 은근 또는 영원함
갑작 사랑은 영이별 ↔ 속히 더운 방이 쉬 식는다
- <7> 자식사랑
아비만한 자식 없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
흉년에 어머니는 굶어죽고 자식은 배 터져 죽는다

3. 문화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순서

3.1. 문화교육의 상위목표 및 각 교육기관의 문화교육 내용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목표는 ‘언어적 능력의 발달 단계와는 무관하게 문화적 숙달도를 키우는 데 있다.’ (조향록 2000)는 견해가 있긴 하지만 보통 언어 능력 향상의 수단으로 본다. 전자는 언어 교육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는 비판(성기철 2001)을 면할 수 없고, 후자는 언어 교육에서 문화의 역할과 교육 내용을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 즉 문화를 언어 능력 향상의 수단으로 본다면 교재에 반영되거나 교육되어야 할 문화 요소는 전통적 문화재나 어휘 차원 정도의 교육에 그칠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목표는 학습자가 한국문화를 접하고 그것이 누적됨에 따라 언어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문화적 내용을 교재 내용으로 구성하여 언어를 통해 문화를 수용하게 해야 할 것이다. 문화적 숙달도와 언어적 숙달도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 요소의 지도 순서는 문화 수용의 단계에 따라야 할 것이다.

3.1.1. 각 기관의 문화교육 목표

아래 <표 1>은 각 교육 기관의 학습목표를 보여주고 있다. 문화 수용의 단계에 따른 고유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문화의 수용 단계는 분명 깊이에서 차이가 나는

⁸ 문화관련 일반론에서 제시된 것들도 있다.

것이다. 그들에게 얼마나 내재화시킬 수 있는가가 분명 언급되어야 하는데 ‘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기른다 → 한국문화에 접한다 → 한국의 문화에 대해 확장된 지식을 갖게 한다’ 는 문화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설정으로 보인다. 문화교육의 목표는 범위의 확장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깊이의 심화를 본질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 이해’ 단계를 거쳐 ‘ 심화’ 의 단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 속담이나 관용어 교육이 어휘 자체를 알게 하는데 있는 경우도 있고, 속담이나 관용어가 문화를 이해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다. ‘ 속담이나 관용어를 익힘으로써 한국적 사고에 익숙하게 한다’ 는 분명 속담이나 관용어를 한국적 사고를 갖게 하는 수단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 속담이나 관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 한국의 관습과 문화를 포함하는 속담을 배운다’ 라는 서술은 속담이나 관용어를 분명 교육목표로 본 것이다. 물론 언어 교육이기 때문에 표현 자체를 익히게 하는 것이 배제될 수는 없다. 그러나 목표설정만은 분명한 용어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표 설정이 명확히 이루어진다면 교육 내용 선정 또한 보다 쉽고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한국의 고전 문학을 감상할 수 있게 한다’ 도 교육 목표로 설정하기엔 편협하다. 문법적 난이도가 기준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수의 특정 학습자를 고려한 목표 설정일 뿐이며, 문화적 심화에 따른 최상위 목표라고도 보기 어렵다.

	A대학	B대학	C대학	D대학	E대학
초급	.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	. 최소한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 간단한 사회활동	. 기본적인 일상활동	. 일상활동
중급	. 한국의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신화, 전설, 명절, 풍습) . 관용어, 속담 사용 능력을 기른다.	. 한국문화에 접할 수 있게 한다. . 한국의 전통 문화 체험하게 한다.	. 한국 속담, 관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쉬운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전통문화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게 한다.	. 한국문화에 대한 세심한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속담, 관용어를 배움으로써 한국적 사고에 익숙하게 한다.	. 관용어 교육, 문화의 중요성 설명 . 한국의 관습과 문화를 포함하는 속담을 배운다.
고급	.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주제와 담화 유형의 글	.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확장된 지식을 갖는다. .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을 받게 한다.	. 고전 문학 작품을 이해할 수 있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감상하고 표현할 수 있다. . 자국의 문화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넓힌다. . 한국문화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 한국의 전통, 관습, 사회적 관심사를 이해할 수 있다. . 한자어, 속담, 관용어 연습

[표 1] 국내 교육기관의 학습목표

3.1.2. 교재에서의 문화교육

교재에서 문화와 관련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제시 순서가 문법적 난이도와 완전히 병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화 항목 내에서 어떤 특별한 기준으로 순서를 갖고 제시된 것도 아니며, 더더욱 문화 습득 과정에 맞춘 것도 아니다.

	A	B
초급 1	식사에절(영어) 한국의 상차림(영어)	한국인의 이름 숫자 4
초급 2	한국어 + 영어 한국의 명절 한국인의 몸짓 언어 한국의 전통미인 서울의 박물관 사물놀이 돌간치	한국의 옛날 집 가족의 호칭 주부들의 주말 한글과 세종대왕 가마 돌과 회갑 태권도
중급 1	한국의 가족 한국인의 별명 몸과 관련된 관용어 주도 절기와 세시풍속 날씨와 속담 명사형으로 끝나는 관용 표현 말과 속담	식사에절 서비스전화번호 안내 백의민족 옛날의 일기예보 바람맞다 한국인의 여가활동

유형과 무형, 현대와 옛날의 것들이 대개 교재 본문 내용과 관련된 정도에서 소개 형식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느 특정 항목에 치중되어 있으며, 가치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2>, <표 3>은 교재의 내용에서 문화 관련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의 경우 중급 단계에서 미풍양속에 치중한 경향이 보이며, <표 3>의 <한국어 4>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식주 문화에서 특히 의복문화는 상징문화만 강조되고 있다. ‘한복’은 우리의 대표적인 상징문화이다. 초급단계에서 언급되어야 했고 분명 초급 단계에서 언급되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알고 있는 학습자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4>의 단계라면 상황에 따른 복식 예절이라든가 한복의 미학적 측면, 한국에서 옷이 갖는 사회적 의미 등을 반영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다. 또 주거 문화에 대한 상대적 빈약함도 지적할 수 있다. 내용의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한다면 급이 올라갈수록 문화에 대한 이해 역시 깊어져야 할 것이다.

	의식주	문화명소	무형 문화재	사고방식
1	한식, 매운음식, 인삼차, 오이김치, 비빔밥, 냉면, 불고기, 국	동대문시장, 남산, 남대문시장, 제주도, 부산, 여의도, 한강, 설악산, 63빌딩, 이대, 종로	한글, 한국춤, 태권도, 동양화, 나룻배, 장기	한 잔 하러 갑시다
2	삼계탕, 갈비, 떡국, 한복, 단독주택, 무궁화호	국립박물관, 민속촌, 창경궁, 절, 대학로, 경주 외 서울 시내 명칭 다수	명절(설날, 추석), 도자기, 탈춤, 붓글씨, 바둑	윗사람이 수저를 든 후에 들다. 존대말, 공짜(덤) 어머니 사랑, 한 톨 내다, 바둑아(이름 문화), 호랑이(상징성)
3	잡채, 김밥, 오징어, 비빔냉면, 미역국, 녹차, 순두부, 독방, 전세, 온돌방,	시청, 남산타워, 지리산, 고궁, 계룡산, 김포공항, 대한극장	대보름, 음력 정월 보름, 청첩장(결혼 문화), 춘향전, 세배, 조선시대 회화, 맛춤, 미풍양속, 사물놀이, 가야금, 품앗이, 환갑	집사람(가족호칭), 잔칫상,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금강산도 식후경, 산에 가야 범을 잡지요, 김장철, 이웃사촌

[표2] 교재의 문화 관련 항목

	의식주	문화명소	무형 문화재	사고방식
1	냉면, 비빔밥, 불고기, 인삼차	지하철과역, 극장, 제주도		
2	매운음식, 떡국, 김치, 불고기, 설렁탕, 갈비탕, 짬두기, 김밥, 소주, 온돌방	설악산, 남대문 시장, 잠실, 예술의 전당, 광화문, 김포공항	태권도, 한겨레신문, 한자, 설, 사물놀이, 전통악기, 한국음악, 씨름, 전통춤, 쉬리	
3	고추장, 매운탕, 라면, 국수, 고춧가루, 냉면, 떡, 참기름, 쌈장, 찌개, 송편, 하숙, 전세, 월세, 자취방, 부동산	관악산, 남대문, 한라산, 지리산, 내장산, 명동, 종로, 서울대공원, 인천, 예술의 전당, 탑골공원	한글, 이두, 세종대왕, 훈민정음, 삼일절, 개천절, 김소월, 윤석중, 김춘수	한턱내다, 가족끼리..., 나중에 예쁜 딸을 낳겠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결혼문화, 손님대접, 스승과 제자, 장례식
4	한복, 색동옷, 버선, 설빔, 두루마기, 저고리, 웃어른	사회 : 과외, 쓰레기 분리수거, 남녀평등 문제 역사 및 인물 : 단군, 환인, 환웅, 고려, 김정호(대동여지도), 김광섭, 윤동주, 김민기 풍속 : 대보름, 연날리기, 윷놀이, 덕담, 차례 옛날 이야기 : 우산장수와 부채장수, 흥부 놀부, 속담 :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등 상징 : 비, 구름, 바람, 호랑이, 곰, 썩, 마늘, 무궁화 유교, 경로사상, 충성심, 현모양처, 내조, 웃어른과 같이 술을 마실 때는, 아리랑		

[표3] 교재의 문화관련 항목2

3.1.3. 특강과 특별활동으로서 문화교육

활동이 주로 성취문화의 탐방에 몰려 있다. 고급 단계의 학습자도 초급 단계의 학습자도 동일한 장소를 방문한다. 초급단계나 여행자 처지에서 접할 수 있는 데 그치고 만다. 장기적인 교육을 받을 학습자를 고려한다면 다양한 상황에 접하여 언어학습을 증진 할 수 있도록 홈스테이 등의 방법이나 고급의 경우에는 한국인 학생 수업의 청강 등을 일상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고급 단계에 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재에 수록된 지문이 때로는 너무 격식적이어서 실제 발화의 경우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교재 자체를 더 구어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다양한 구어를 상정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으므로 실제 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2.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순서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목표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 학습자의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언어교육 담당자는 문화 동화의 단계까지 교육에서 준비해야 한다.

문화 습득의 4단계⁹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단계에 문화 경험의 빈도를 토대로 현행 자료의 것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자료는 여러 교육 기관의 자료로 중급 교재에 있는 것들이다. 각 기관의 교재가 문법적 난이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삼으면 다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1 단계는 황홀감의 시기라고 한다. 밀월여행처럼 그리고 새 땅을 보는 것과 같은 흥분의 시기다. 대상에 대한 느낌이 최고조로 긍정적인 시기로 이국의 새로운 환경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흥분과 도취의 단계이다.

자료 1. 집에서 송편이나 만들까 해요.

미치코 : 모래가 추석인데 지연 씨는 뭐 할 거예요?

지연 : 고향에 못 가게 되었으니 집에서 송편이나 만들까 해요. 미치코 씨, 한 번 같이 만들어 볼래요?

미치코 : 좋아요. 그런데 지연 씨는 송편을 만들 줄 알아요?

지연 :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가족끼리 밤 12시가 넘도록 만들었어요. 송편 만들어 본 지 벌써 5년이 넘었네요.

미치코 : 어머, 그런데 잘 만들 수 있겠어요?

지연 : 그럼요. 전에는 송편을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쁜 딸을 낳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미치코 : 그럼 지연 씨만 믿을게요.

전 요리에는 자신이 없어요.

이 단계에서는 예로 ‘추석’을 문화 항목으로 했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는 문화의 위계에 따라야 한다. 위의 지문은 추석이라는 풍습에서 ‘송편 만들기’라는 구체적 행위와 풍습을 중심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료 2. 팔월 한가위

딸 :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딸을 낳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어머니 : 글썄,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고 조상차례에 쓸 음식이니까 정성껏 만들라는 음식이겠지.

⁹ H. Douglas Brown 이흥수 외 p.213

112 김은호

딸 : 그런데, 추석은 언제부터 시작된 명절이에요?

어머니 : 전해오는 말로는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풍습이라더라.

송편 속을 골고루 많이 넣어라.

딸 : 우리 명절 중에 추석이 제일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어머니 :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 라고 했잖나?

자료 3. 예쁜 송편을 빚어 봅시다.

매년 한가위 때마다 우리 집에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함께 지냅니다. 차례와 성묘에 대비해 미리 음식을 준비해야 하니 맘먹느리인 나의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두 동서, 그리고 시누이들의 전폭적인 도움이 힘든 일손을 즐거운 일손으로 바꾸어 줍니다. 어릴 적 이야기를 하는 등 이런저런 일로 이야기 꽃을 피우다 보면 힘든 줄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세 며느리가 주눅들만큼 음식 솜씨가 좋으십니다. 그뿐 아니라 요즘처럼 명절 음식을 인스턴트로 사서 마련하려 드는 우리 젊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명절 음식만큼은 우리 가족의 손으로 넉넉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올해 한가위 송편도 어머니께선 직접 빚으실 겁니다.(후략)

한가위의 풍성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단기간의 해외여행에서도 경험해 보았지만 이 단계에서는 문화의 내면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는 문화재를 포함한 유형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화재에서 느낀 이미지를 많이 표현하는 시기이다.

교재의 내용을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 어휘와 문화재 어휘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것이 ~입니다 ’ 라는 구문 학습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 책상, 가방, 집 ’ 등 같은 어휘보다는 문화재의 이름이나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로 구성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또 문화재나 전통적 양식은 흔히 사용하지 않는 내용이니 만큼 사물의 직접적 제시나 한복 입어보기처럼 직접 체험 등이 한국어 학습 능력 향상에 적극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 단계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실제 생활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그들 자신의 자아와 안정감에 점점 더 많은 문화적 차이가 침입해움을 느끼면서 발생한다. 자국문화 중심적 판단을 하게 되므로 목표 언어문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감정이 최고로 높아지는 단계이다. 이런 부정적 감정은 생활의 불편함이나 문제 해결 과정의 갈등 등에서 야기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교재 내용 구성은 언어기능면에서 특정 상황에 대한 정보 얻기나 요청하기, 두 문화를 비교하기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자료 4. 한국인의 귀향(歸鄉)

…… 많은 사람들의 등에는 고향의 끈이 운명처럼 매달려 있다. 그리고 이 끈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고향으로 끌어 당긴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던 이 끈이 거대한 힘에 의해 드러나는 때가 가끔 있다. 추석이나 설 무렵이면 귀향(歸鄉)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인구의 대이동이 그것이다.

추석 기간 동안 열차, 고속버스, 자가용, 전세버스 등을 이용하여 고향으로 가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4백만 명 가량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고향을 찾아 서울로 빠져나가는 사람은 약 190만 명이며, 꼭 귀성 때문이 아니더라도 성묘, 관광 등의 이유로 빠져나간 사람까지 포함하면 300만 명에 이른다. 그리하여 서울 도심은 텅텅 비는 공동현상까지 일어난다.

술한 사람들이 혈육의 정, 명절의 따스한 분위기, 고향의 안락함 등을 꿈꾸며 아귀다툼 같은 교통혼잡을 비집고 서울을 빠져나간다. 그리고 시골 마을은 오래간만에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 활기를 되찾는다. 나이 드신 부모님과 친지, 동네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나서, 대개 동년배끼리 사랑방을 하나씩 차지하고서는 이런저런 추억담, 도시 생활 이야기 등을 나눈다. 오랜만에 일상의 분주함과 고단함으로부터 벗어나 짧은 시간이나마, 고향에서 살았던 자신을 되돌아보며, 지금의 자기 위치를 확인해 보는 시간인 것이다.

일상생활보다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비교적 접할 가능성이 많은 문제 상황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추석과 관련된 문제 상황이란 추석 때 벌어지는 인구 대이동, 그에 따른 교통의 불편함, 예약 문제, 시장보기, 시장이나 백화점의 복잡함 등일 것이다. 1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제 체험이 적극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과제중심적 접근법을 통해 현장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의미 있고, 현장을 직접 보게 하거나 드라마 등을 통해 간접 경험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 단계를 교육자나 학습자에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 실패의 절반 이상은 교육자나 교재를 비롯한 교육내용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 단계는 문화 적응의 단계이다. 문화 스트레스 단계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동요하다가 점차적으로 회복해 가는 단계이다. 현지의 가치를 얼마간 수용하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사회망으로 편입될 때 시작된다. 학습자가 두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목표 언어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 즉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교육이 가능한 단계이다. 지문 <한국인의 귀향>을 예로 들면 2 단계에서 행위의 양상을 교육 내용으로 했다면 3 단계에서는 그렇게 복잡함을 감수하는 그 이유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문화와 목표언어 문화에 대해 감정이입 없이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4 단계는 새로운 문화에 동화, 수용, 적용 단계이다. 이 단계는 목표언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할 수 있으며 문화 상황에 대해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단계이다. 문화관련 내용도 보다 전문적으로 접하게 되는 단계이다. 따라서 다양하고 심층적인 해석이 실린 내용 구성도 학습이 가능한 시기이다.

지금까지 문화수용의 4 단계를 토대로 문화교육의 바람직한 순서를 제시해 보았다. 그렇다면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의 목표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인이 되어 시작한 제 2외국어이기 때문에 4 단계까지는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방인에게 한국적 사고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민자의 이민 생활을 들여보았을 때 가장 큰 장애가 된 것은 언어라기보다 그들과 달리 행동했기 때문에 혹은 그들의 행동양식과 어긋났기 때문에도 종종 있었다. ‘우리가 성공적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결국 그들처럼 사고하는 것’이라는 캐나다 유학생들의 증언처럼 언어를 넘어선 사고 변화까지도 교육 목표에 설정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복잡한 시도이긴 하지만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는 수단이 아닌 궁극적 목표 설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작업이 필요하다.

1)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고정관념을 피해야 하는 동시에 한 문화와 다른 문화를 구분시키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가치 문화 항목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문법 항목과 마찬가지로 객관화된 가치 또는 우리의 사고 체계를 선정해야 한다.

2) 의식주 항목에 치우친 언어문화 교육은 지양해야 한다. 이는 의식주 항목의 교육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 항목의 교육이 초급 단계에서 이루어졌다면 점차적으로 거기에 내재된 가치를 교육해야 한다.

3) 문화지식교육과 문화교육도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보통 고급으로 갈수록 교재에 의존하는 문화의 전문적 지식이나 말하기의 유창성에만 치중되는데 좀 더 심도 깊은 체험도 구상되어야 한다.

4) 학습자 문화권에 따른 차별적인 교육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현행 교재들은 교육 기관에 따라 일본어판, 영어판 식으로 여러 언어권별로 나와 있지만 모두 문법적 설명을 그들의 언어로 표현한 분류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국가에 따라 우리와 문화 간의 사회적 거리에 차이가 있음은 분명하다. 문화 간 거리란 한 개인 속에서 만나게 된 두 문화의 인지적, 정의적 거리감으로 두 문화의 상이함을 뜻한다. 한국과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학생은 영어권보다 문화적 거리가 가까움은 피상적으로 보아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아시아권 학생과 유럽권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재 내용을 가르치고 동일한 현장 체험을 하는 것은 교육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문화권에 대한 심층적 연구 및 거리감에 따른 난이도 조정이 필요하다.¹⁰

참고 문헌

- 김광수(2000), “한국어 교수에서의 문화요소 주입에 관하여.”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태학사.
- 김영자(1995), “이중언어로서의 해외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의 세계화” 「이중언어학회지」, 12. 이중언어학회
- 김정숙(1996),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교육한글」, 10. 한글학회.
- 민현식(1996), “국제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화론의 내용구성 연구.” 「한국말교육」, 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박영순(1989), “제2언어교육으로서의 문화교육.” 「이중언어학회지」, 12. 이중언어학회.
- 성광수(1995), “해외한국어교육의 몇 가지 문제.” 「이중언어학회」, 12.
- _____(1996), “한국어의 세계적 보급을 위한 언어정책 검토.” 「이중언어학회지」, 13.
- 손호민(1999),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방법.” 「국어교육연구」, 제 6집.
- 안경화(2000), “속담을 통한 한국 문화의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제 12권 1호.
- 윤여탁(2000),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위상과 역할.” 「국어교육연구」, 제 7집.
- 이규태(1983), 「한국인의 의식구조」. 신원문화사.
- 이득춘(2000), “한국어 교수에서의 문화교육에 대한 학습수감.”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태학사.
- 이문웅(1997), 「문화의 개념(레스리 화이트 저)」, 일지사.
- 이숙화(1995), “이중언어문화 철학론과 교육모델.” 「이중언어학회지」, 12.
- 이정자(2000), “언어와 문화교육.”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태학사.
- 이홍매(2000),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일고찰.”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태학사.

¹⁰ 문화 간의 거리 측정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John Schumann(1976)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가 동일함, 지배, 통합, 응집, 영속성의 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 중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것은 동일함과 영속성이다. 동일함(congruence)은 두 그룹의 문화는 동일한가, 즉 가치와 신념 체계에 있어서 유사한가, 서로에 대한 두 집단의 태도는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는 교육의 진도와 속도를 조절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다. 가치와 신념 체계가 유사할수록 목표 언어의 문화에 거부감 없이 접할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있으며, 목표 언어 문화에 호감을 가질수록 적극적 자세가 되기 때문에 문화에 빠르게 심취하고 언어 학습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영속성(permanence)은 의도하는 목표 언어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은 얼마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문법 항목이나 문화의 심도와 유관하다. 분명 단기 비자의 여행자과 장기 체류할 학습자에게 다루어질 내용은 달라야 한다.

- 이흥수 외(2001), 「외국어 학습. 교수의 원리.(H. Douglas Brown).
- 임태석 편(1993), 「정, 체면, 연출 그리고 한국인의 인간관계」. 한나래.
- 정종화(1996), 「한국 전통 사회의 정신 문화 구조 양상 : 속담을 통해 본 가치관의 비교문화 적 접근」. 고려대출판부.
- 조창환(1996), “ 한국어 교육과 연계된 한국 문화 소개 방안.” 한국말 교육 7.
- 조향록(1998), “ 한국어 고급 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제9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향록(2000), “ 초급 단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제 11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향록, 강승혜(2001), “ 초기 단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수요목의 개발.” , 한국어교육.
- 차재호, 나은영 역(1995), 「세계의 문화와 조직」(Hofstede, G.,(1995). Culture and Organization.), 학지사.
- 최명식(2000), “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범위와 전수방법.”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태학사.
- 한상미(1999), “ 한국어 교육에서의 언어와 문화의 통합적 교육 방안 - 의사소통 민족지학 연구 방법론의 적용.” 한국어교육 제10권 2호.
- Byram, M.(1989) *Cultural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 Brown, H Douglas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 teaching* (4th ed.); Prentice Hall Regents.
- _____ (2004), *Teaching by principles* (2nd ed.); New York, Longman.
- Omaggio, Hadely Alice(2001), *Teaching language in context*(3rd ed.) Heinle&heinle.
- Scollon.R & Scollon. S.W (1995) *Intercultural Communication*.
- Seelye, H. Ned.(1988), *Teaching Culture*, Lincolnwood, IL: National Textbook Company
- Tomalin, Barry & Stempleski, Susan(1993), *Cultural Awaren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alette, Rebecca M.(1995), The Culture Test. in Valdes, Joyce Merrill, ed. *Culture Bou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rner Sasse(1996), “ Teaching Korean Culture through Korean Studies. - Creating Myths to Live By.”, 한국말교육 7.

김은호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우: 136-701)
millar@korea.ac.kr